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, 복지지출 부담 증가

-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현재 6.9%에서 2020년에 최대 11.2%가 될 것으로 전망됨.
 -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.7조원을 나타내어 2008년 66.3조원 대비 11.2% 증가하였으며,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58.2%로 전년대비 2.3%p 높아짐.
 - 국민의료비란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경제수준 대비 의료비 지출 정도를 나타냄.
 - 한편,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추세와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하여 향후 10년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한 결과,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최소 8%에서 최대 11.2%가 될 것으로 전망됨.
 - 최근 빠른 의료비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방안마련이 필요함.
- 복지지출이 현재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할 경우 2050년 국내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.6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 - 기재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3.0%에서 2005년 8.0%로 증가하였으며, 2050년 45.6%가 될 것으로 예상함.
 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적용으로 복지지출 항목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, 4대 사회보험,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등이 포함되었으며,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은 20.8%가 유지된다고 가정함.
 -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 118조원에서 2050년 2,357조원으로 연평균 8.1% 증가가 예상되며,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5.2%에서 2050년 216.4%로 높아질 전망이다.
 - 한편,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를 막기 위하여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경우 2050년 조세부담률은 40%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함.

(미래 의료비 시나리오 등, 보건복지부 등, 5/10)